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의 교육훈련 활동

이 글은 1996년 스웨덴노총(LO)이 발행한 「전통과 혁신: 스웨덴노동조합교육의 오늘」을 번역한 것이다.

스웨덴노총(LO)

번역 :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스웨덴 노동운동의 교육 전통

스웨덴 노동운동의 교육 전통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조합의 교육전통은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이 노동계급의 중요로운 삶을 향한 투쟁의 한 영역이 된 19세기말에 시작되었다. 당시는 교육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던 시대였다. 1912년 노동자교육협회(ABP)가 창립됨으로써 더 많은 민중들이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별한 학습방법, 즉 학습동아리(study circle)가 개발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습동아리라는 교육방법은 오늘날에도 스웨덴 민중교육의 기

등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민중도서관과 민중학교(folk high-school)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오늘날 19개 노동조합과 2백만 조합원들을 가진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 이하 스웨덴노총)은 스웨덴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이다. 실제 모든 조합원은 다양한 형태로 오랜 전통을 가진 민중교육에 참여해왔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학습동아리에 참가하거나 민중학교 학생이 됨으로써 민중교육과 연관을 맺었다.

오늘날에도 교육문제는 노동조합운동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교육의 혁신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스웨덴의 오랜 민중교육 전통에 노동조합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습동아리

노동조합 학습에 적용되는 학습방법은 학습동아리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학습동아리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별 학습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학습동아리의 큰 이점 가운데 하나는 참가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인성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학습동아리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당연히 이들의 요구와 수준은 서로 다르다. 대개 학습동아리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습의 진도와 목표, 그리고 학습에서 얻고 싶은 바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리를 이끄는 사람의 역할은 학교 선생님의 역할과는 전혀 틀리며, 오히려 진행자·조정자·관리자와 유사하다.

학습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5명~10명이다. 이들이 갖는 공통 점은 자진해서 학습과정에 지원했으며, 학습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학위나 사후 혜택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약속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지식을 찾는 것이다. 학습동아리는 깊고 폭넓은 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할 때,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방법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¹⁾

1) 1994년과 1995년에 모두 853,026명이 노동자교육협회에서 주관한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학습동아리라는 교육방법을 창시한 사람은 민중운동의 활동가였던 오스카 올슨 Oscar Olson으로 그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자아성취를 실현 하려 했다. 그는 1877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다.



스웨덴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교육훈련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 학습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스웨덴의 모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교육, 즉 노동조합 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학습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노조교육의 목적은 우선 개별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기본 지식과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을 바로 전달하는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 기초 학습은 발전해 왔다. 노동조합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한 가지는 오랜 민중교육의 전통적인 가치를 복원하고 수학과 외국어 같은 실용적인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컴퓨터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고 장래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초 교육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며 사전 지식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위한 교육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들 혹은 노동조합 과제에 맞추어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특별 교육기회가 부여된다. 이 교육은 3단계로 구성되며 '일반노동조합지도자교육'이라 불린다. 1단계 교육은 산업별 노조 차원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1단계 교육은 노조마다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 물론 1단계 교육의 목표는 모든 노조에 동일하다. 즉 참가자들에게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주로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과 조합원 조직방식을 다룬다. 참가자들은 작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배운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왜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 교육은 노동조합의 활동계획서를 만들고 노동조합 목표를 수립하며 사업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다른 중요한 측면은 참가자들이 조합원들을 지도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교육은 거의 학습동아리 형태로 수행된다.

2단계 교육과 3단계 교육은 노총이 실시하며, 이 교육은 노동조합의 선출된 대표자와 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2단계 교육의 대상은 지역조직, 즉 산별노조의 지부(branch) 혹은 분회(section)이다. 2단계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지역 차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계획·조직·조정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작업장 차원에서 노동조합 협상지원, 노동조합 발전 사업 혹은 다른 유형의 활동 따위를 다룬다. 경제학, 사회학, 노동조합의 이론장악 방법, 노동조합 지도력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물론 이 교육은 중앙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주 과정에 이어 가정 학습이 진행되며, 이후 1주 과정이 추가된다. 또한 이 교육은 지역 차원에서 외부 학습의 형태로 3일씩 5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노총으로부터 그 질을 보장받는다.

제3단계 교육은 지역 혹은 전국 차원에서 노동조합 과제를 담당할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노동시장, 임금체결, 지역정책, 여론 장악력 같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제와 사회 문제들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의 재정을 분석하고, 장 폭 참가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며, 교사와 강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3단계 과정은 6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은 2주일 동안 진행된다. 3단계 교육의 6개 과정은 다음과처럼 구성된다.

① 이데올로기

이 과정은 노동조합운동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론으로 구성된다.

② 조직발전과 지도력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조직 모델을 학습하며, 사용자들의 활동방식과 지도력, 그리고 사용자의 지도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③ 국민경제

이 과정은 다른 나라와 스웨덴의 경제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사회 변화에서 교육의 역할, 노동시장 전망, 경제와 시장에 대한 이론 따위를 학습한다.

④ 노동법

스웨덴의 법률체계와 작업장에서의 법률분쟁 처리방법이 중요한 과목이다. 또한 이 과정은 유럽나라들의 노동입법 상황도 살펴난다.

⑤ 노동조합의 여론장악

여론장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어떻게 여론장악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 미디어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룬다.

⑥ 노동과 성취: 노동조합 임금정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평등·교육·노동·임금·이윤·재분배 문제를 다룬다.

6개 과정 가운데 노동법 과정은 통신교육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조합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참여하게 된다. 스웨덴노총은 참가자들에게 컴퓨터를 빌려주고 컴퓨터를 통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컴퓨터강사도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

특정 기업의 노동조합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들을 위해 스웨덴노총은 경영과 관련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교육은 5단계로 이뤄지며 각 단계는 1주 일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경영학, 국민경제, 유럽연합 관련 문제를 다루며 기업이사회(company board)에서 노동조합대표자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르친다.

이밖에도 노총은 특별 프로그램 2개를 더 갖고 있다. 하나는 근로환경을 다룬다. 이 과정의 주요 주제는 노동조합산업안전대의원이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

들기 위해 조합원, 노동조합간부와 협력하고, 사용자와 협상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중매체, 홍보선전, 선동술을 다룬다. 이 과정은 홍보선전과 여론장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뉴스를 평가하고, 여러 종류의 매체를 갖고 실습하며, 직접 인터뷰해 보며, 기사 거리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조직하는 방법을 배운다.

노동조합대학(trade union university)교육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과 노동조합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스웨덴 노총의 대학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수준과 질이 담보된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참가자들은 '일반노동조합지도자 3차 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스웨덴노총의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노동조합대학 교육에서 배우는 교재는 훨씬 폭넓고 이론적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소논문 형태의 시험과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일~20일 일정으로 숙박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숙박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교육을 지원하는 법률들

1970년대 초에 사회민주당 정부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새 법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시작했다. 1974년 두 가지 중요한 법률, 즉 '노동조합대표자의 작업장 지위에 관한 법률'과 '종업원의 교육휴가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대표자의 작업장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유급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노조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을 보장받으며, (감봉없이)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 덕택으로 노동조합의 교육활동가(study organizer)들은 휴가를 얻어 자기가 속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가가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학습활동 조직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교육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작업장 활동에 필요 한 주제나 분야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 물론 이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제는 작업장 차원의 단체협약에서 규정된다.

‘종업원의 교육휴가권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작업장,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모든 종류의 학습 교육활동에 적용된다. 교육휴가 동안 무엇을 학습하고 배울지, 그리고 그 교육에서 시험을 치는지 학점을 받을 지는 종업원 자신이 결정한다. 법률은 학습 휴가에 어떠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며, 또한 노동조합 학습동아리에 참가하기 위해 매주 몇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휴가는 작업상황에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휴가를 연기 할 수 있다. 법률은 학습휴가를 마친 종업원이 이전에 자기가 일하던 직책으로 복귀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은 학습휴가를 단축하고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권리도 있다.

스웨덴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 고향

20세기 초반에 스웨덴 최초의 민중학교(folk high-school)가 만들어졌다. 민중학교들은 민중운동의 세 가지 큰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었다. 그것은 자유교회, 금주운동, 노동운동이었다. 백년 이상동안 민중학교는 노동계급 교육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오늘날 스웨덴노총은 루뇌, 브룬스비크, 루뇌-외레나스에 세 개의 민중학교를 갖고 있다. 이 학교들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학교는 노동운동의 정신과 이론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노총 조합원들이나 실업자들도 민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민중학교에는 30주 동안의 고등학교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노동조합, 정치학, 일반성인교육론, 미디어교육, 문화교육, 노동조합지도력 향상교육, 컴퓨터, 외국어, 국제업무, 근로환경, 경영학 따위를 가르치며 통신과정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민중학교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다른 성인교육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는 1968년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릴 적 한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생 내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모두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한다.” 이 말은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의 교육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다. ♦